

문화로 생동하는 대한민국

2009년 5월 셋째주

음악산업 주간동향 리포트



한국콘텐츠진흥원

What's Happening in Music Industry? [2009년 5월 셋째주]

5월 셋째주 음악산업 동향 Key Word

- 데뷔 싱글 'Fire'를 발매한 2NE1은 막강한 후광효과를 등에 업고 발매직후 각종 음원 차트 당일 순위 1위를 차지하는 등 화려한 데뷔
- 7월 마지막 주말 열리는 국제 록 페스티벌 두 개의 과열된 경쟁구도
- 프랑스, 불법다운로드 근절을 위해 인터넷 저작권 보호법안 '삼진아웃제' 통과

콘텐츠 목차

1. 소비자 동향

- 1-1. 2009.5월 1주차 음원 판매 현황
- 1-2. YG엔터테인먼트의 여성그룹 2NE1, 화려한 데뷔

2. 산업 동향

- 2-1. 같은 날, 다른 장소, 두 개의 록 페스티벌 성공할까?
- 2-2. 보아, 미국 최대 에이전시 CAA社와 계약 체결
- 2-3. 그들은 왜 트로트로 돌아왔나?
- 2-4. 미디어 소비 행태와 광고 영향력 조사 결과
- 2-5. 미국,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 리스트에서 한국 제외
- 2-6.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, 저작권 침해 건으로 NHN 고소

3. 기술 동향

- 3-1. 애플, 아이팟용 '멀티미디어 콘텐츠 자판기' 특허 출원

4. 정책 동향

- 4-1. 한국 콘텐츠 진흥원(원장 이재웅) 출범
- 4-2. 문화체육관광부, 저작권 보호 T/F 설치안 발표

5. 해외 동향

- 5-1. 프랑스, '삼진아웃제' 불법다운로드 인터넷 접속 금지법 의회 통과
- 5-2. 영국, 정부가 지원하는 젊은이를 위한 대중음악 리허설 공간 첫 개관

※ 관련 기사 및 자료 목록

1 소비자 동향

1-1. 2009년 5월 1주차 음원 판매 현황

구분	엠넷 (5.4~5.10)		멜론(5.3~5.9)		도시락(5.4~5.10)	
순위	전주 비 변동	곡명- 아티스트	전주 비 변동	곡명- 아티스트	전주 비 변동	곡명- 아티스트
1	↑1	Again & Again - 2PM	-	Lollipop - 빅뱅&2NE1	-	Again & Again - 2PM
2	↓1	My Man - 다비치	↑4	Again & 2PM	진입	Fire - 2NE1
3	-	Lollipop - 빅뱅&2NE1	↓1	쏘리 쏘리- 수퍼주니어	↑1	My Man - 다비치
4	-	쏘리 쏘리- 수퍼주니어	↑6	My Man - 다비치	↓2	Lollipop - 빅뱅&2NE1
5	진입	Fire - 2NE1	↓1	눈물이 똑똑 - 케이윌	↓2	쏘리 쏘리- 수퍼주니어
6	-	사랑해-SG Wannabe	↓3	토요일밤에 - 손담비	-	사랑해-SG Wannabe
7	↓2	눈물이 똑똑 - 케이윌	↓2	심장이 없어 - 에이트	↓2	눈물이 똑똑 - 케이윌
8	↓1	Diva - 애프터스쿨	↑1	Diva - 애프터스쿨	↓1	Diva - 애프터스쿨
9	-	내사랑 울보 - SG Wannabe	↓2	사고쳤어요 - 다비치	↓1	토요일밤에 - 손담비
10	↓2	토요일밤에 - 손담비	↓2	8282 - 다비치	↓1	Simple Love - MC몽
11	↓1	심장이 없어 - 에이트	↑2	사랑해-SG Wannabe	↓1	심장이 없어 - 에이트
12	↓1	Simple Love - MC몽	↓1	터질 것 같아 - 지아	↑32	Mission No.4 -헵틱팝 OST
13	↑48	Mission No.4 -헵틱팝 OST	↑2	친구의 고백 - 2AM	↑2	너를 비운다
14	↓2	터질 것 같아 - 지아	↓2	Insomnia (불면증) - 휘성	진입	여성시대
15	↓2	사고쳤어요 - 다비치	↓1	오랜만이야 - 임창정	↑4	Boo - 아이유
16	↓2	친구의 고백 - 2AM	↑3	Simple Love - MC몽	↓5	1, 2, 3 (원투쓰리) - 윤하
17	↓2	1, 2, 3 (원투쓰리) - 윤하	↓1	Gee - 소녀시대	↓5	터질 것 같아 - 지아
18	↓2	8282 - 다비치	↓1	1, 2, 3 (원투쓰리) - 윤하	↓5	사고쳤어요 - 다비치
19	-	쿨하게 헤어지는 방법 - 김진표	↑12	Boo - 아이유	↓2	바래진 기억에 - 박지윤
20	↓3	나 혼자서 - 티파니(소녀시대)	↑5	마음이 다쳐서 - 나비	↓6	8282 - 다비치

(mnet.com, melon.com, dosirak.com의 '09.5월 1주차 스트리밍 기준)

- 2PM의 Again & Again 이 2개 차트 1위, 1개 차트 2위를 차지
 - 댄스곡 '10점 만점에 10점'으로 데뷔한 2PM은 데뷔 8개월만에 각종 차트 석권
 - 데뷔 후 처음으로 방송사 차트 1위 차지 (5/7 엠카운트다운, 5/10 SBS인기가요)
 - 5/14일부터 후속곡 '너라고'로 활동을 이어갈 수퍼주니어 외에는 한동안 주요 아이돌 그룹의 컴백이 없을 예정으로 2PM의 독주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
- 가수 손담비와 드라마 '꽃보다 남자'의 주인공 F4멤버가 참여한 '애니콜 헵틱 미션'의 배경 음악 'Mission No.4', 전주 비 순위 급상승하며 20위권 진입 (엠넷 - 48위 상승한 13위, 도시락 - 32위 상승한 12위)
- 4/22일 6집 앨범을 발매한 SG Wannabe는 '사랑해'를 순위 유지/소폭 상승시키며 10위권 내 정착, 여전한 판매파워 확인

1-2 YG엔터테인먼트의 여성그룹 2NE1, 화려한 데뷔

- 5/6일 발매된 YG Entertainment 의 새로운 여성 그룹 2NE1의 데뷔 디지털 싱글 'Fire' 가 발매 2일 만에 각 음원 차트에서 당일 차트 1위를 차지하면서 주간차트에서도 상위권에 랭크
 - 지난달 발매된 디지털 싱글 롤리팝은 이미 4월 한 달 간 1위를 차지한 바 있음
 - 5/2일 공개된 Fire의 뮤직비디오는 조회건 수 300만건에 육박
 - 5/17일 SBS 인기가요에서 데뷔 무대 후 활동 시작
- 2NE1의 런칭 전략은 크게 강력한 기존 브랜드의 후광을 활용하는 것과 OST를 통한 인지도 제고전략임
 - 런칭 전 단계에서 이미 '여자 빅뱅'으로 알려짐
 - 현재 가장 강력한 아이돌 브랜드인 '빅뱅'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그룹일 것이라는 인상을 주는 후광효과는 빅뱅과 함께 LG 롤리팝폰 광고에 참가하면서 강화
 - 뿐만 아니라 기획사인 YG엔터테인먼트가 가지고 있는 '음악성 있는', '완성도 있는', '창조적인', '아티스트' 이미지를 2NE1에서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
 - 이러한 후광 효과 전략은 대형 기획사의 신인이 데뷔할 경우 주로 구사 (손담비 - 애프터스쿨, SM의 슈퍼주니어 - 소녀시대 등)
 - 현재 삼성 애니콜과 함께 휴대폰 단말기 시장 1인자를 다투고 있는 LG 싸이언 광고에 뮤직 비디오 형식으로 출연함으로써 '음악적인' 이미지는 유지하되 전방위적인 광고 노출로 인지도를 급상승시킴

2 산업 동향

2-1. 같은 날, 다른 장소, 두 개의 록 페스티벌 성공할까?

- 7/24~26일, 아이에스컴의 '펜타포트 락 페스티벌'과 옐로우 나인의 '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' 두 개의 록 페스티벌 개최 예정
 -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2006년부터 시작되어 지난 3년 동안 15만 관객을 동원한 국내 대표적인 락 페스티벌
 - 그동안 투자와 공연 진행을 맡은 아이에스컴과 뮤지션 섭외 및 무대 설치 등을 담당한 옐로우나인이 공동 주관
 - 그러나 올해 옐로우나인이 독립하여 지산밸리 록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선언
- 두 페스티벌의 일정이 동일한 것은 日 후지 락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외국 아티스트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
 - 이전 펜타포트에서 아티스트 섭외를 맡았던 옐로우나인은 후지 록 페스티벌을 개최하는

스매시 코퍼레이션과 연계하여 '후지 록 페스티벌(7월 24~26일)'에 참가하는 아티스트들을 초청

- 반면 옐로우나인이 빠진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의 경우 아티스트 섭외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
 - 현재까지 발표된 1차 라인업 또한 대부분 국내 아티스트로 섭외
 - 후지 록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아티스트를 제외하고 섭외할 경우 추가 개런티 지출이 불가피
- 현재까지 발표된 라인업을 단순 비교해보면 영국의 오아시스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 지산 밸리 락 페스티벌이 우위

- 2개의 락페스티벌이 동시에 개최되면서 관객 동원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
 - 페스티벌에 고정적으로 참여하는 국내 록팬은 1~2만명 내외로 추산
 - 지난해 日 서머소닉 페스티벌 참여 아티스트가 내한할 예정으로 화제를 모았던 썸머브리즈 페스티벌이 티켓 판매 부진으로 취소된 바 있음
 - 관객 입장에서 아티스트 선택에 제한이 오는 등 불편 예상

록 페스티벌 개요 비교		
	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	2009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
일정	7월 24일(금) ~ 26일(일)	7월 24일(금) ~ 26일(일)
장소	경기 이천시 지산 포레스트 리조트	인천 송도 대우자동차 판매 부지
구성	빅 톱 스테이지, 그린 스테이지, 일렉트릭 세션, 캠프 사이트 등	빅 톱 스테이지, 펜타포트 스테이지, 그루브 스테이지, 캠핑 존 등
주관	옐로우나인	아이에스컴
티켓가격	1일권 88천원, 2일권 132천원, 3일권 165천원 ('09년 기준)	1일권 88천원, 2일권 132천원, 3일권 165천원 ('08년 기준)
특징	- 스키리조트에서 실시하는 그린 페스티벌 컨셉 - 日 후지 록 페스티벌과 라인업 공유 (후지 주관사인 스매시 코퍼레이션과 MOU 체결)	- 국내 최대의 락 페스티벌로, 지난 3년간 약 15만명의 관객 동원
아티스트 라인업	위저, 폴 아웃 보이, 지미 잇 월드, 프라실라 안, 언니네 이발관, 이한철 등 (1차) 오아시스, 닥터코어911, 아시아 쿵푸 제너레이션, 타카피, 짚은, 비둘기 우유 등 (2차)	데프톤스, 렌카, 에스키모 조, 노브레인, 서울전자음악단, 국카스텐, 갤럭시 익스프레스 등 (1차) 2차 라인업 미발표

- 인천시와 아이에스컴은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의 개최와 상표권 사용에 관한 기자회견

(5/14 오후 5시, 소공동 프라자호텔)

- 옐로우나인, 지난 3/2일 펜타포트에 대한 명칭과 엠블럼 등록 승인
- 인천광역시는 이에 대해 상표권 무효 심판 제기, 소송중 (인천지법, 4월)

2-2. 보아, 미국 최대 에이전시 CAA社와 계약 체결

- 보아는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에서 큰 성공을 거둔 이후 지난해부터 미국 시장 진출 본격화
 - '08.10월 미국에서 첫 디지털 싱글 '잇 유 업(Eat You Up)'을 발표
 - '09.03월에는 정규 데뷔 앨범 '보아'를 발매, 빌보드 각종 차트에 진입
 - '빌보드200*'에서 발매 첫 주 127위로 진입했고 신인 앨범을 대상으로 하는 '톱하트시커' 3위, '톱일렉트로닉' 앨범 5위 등을 기록
 - 최근 싱글 '아이 디드 잇 포 러브'(I did it for love)를 내고 프로모션 활동 중
- 미국은 가수의 매니지먼트가 음반레이블과 에이전시로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
 - 음반의 발매 등 음반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레이블과 계약, 지원하며 아티스트의 활동에 관한 매니지먼트는 에이전시에서 담당
 - 미국 음반레이블은 4개 메이저社 (유니버설 뮤직 그룹 (UMG), 소니 BMG 뮤직 엔터테인먼트, EMI, 워너 뮤직 그룹)이 장악
 - 미국의 에이전시는 한국에서의 연예기획사 혹은 매니지먼트사와 비슷한 개념의 회사로 가수, 배우, 작가, 감독, 스포츠선수와 계약을 맺고 음반, 광고, 영화, TV, 스포츠 등 활동 전반을 주선하고 대행
 - 예를 들어 팝스타 머라이어 캐리의 음반 레이블은 UMG, 에이전시는 CAA임
- 美 엔터테인먼트 전문지 '할리우드 리포터'는 보아와 CAA* 계약 체결 보도 (5/6日)
 - 보아는 미국 진출 시 메이저社가 아닌 인디레이블 아스널 엔터테인먼트와 계약한바 있음 (에이전시는 SM엔터의 자회사인 SM USA)
 - 미국에서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데 제약이 따름
 - CAA는 보아의 에이전시인 SM USA와 계약을 맺은 것임
- 따라서, 이번 CAA와의 계약은 보아의 미국 메이저 시장 진출 본격화 의미
 - 보아는 일본에서도 SM Japan과 일본 최대 기획사인 Avex의 합작에 의해 데뷔한 바 있음
 - 보아는 CAA사와의 계약 下에서 올 하반기 전미 콘서트 투어 계획도 발표

※ 빌보드200 : 주간별 모든 장르의 앨범 판매량을 집계하여 순위를 발표하는 차트

※ 미국 CAA 사 (Creative Artists Agency)

- 1975년 설립된 미국 최대 탤런트 에이전시
- 보유 스타 : 가수 머라이어 캐리,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와 배우 브래드 피트, 조지 클루니, 윌 스미스,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, 축구선수 데이비드 베컴 등
- 최근 한국 엔터테인먼트산업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지고 미국 진출이 많아지면서 영화감독인 강제규, 김지운, 봉준호, 이재한도 CAA의 클라이언트로 등록
- 한국 가수로는 보아가 최초
- 특히 뮤지션들의 투어 매니지먼트 능력이 뛰어나, 톱클래스 뮤지션들의 스케줄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음

2-3. 그들은 왜 트로트로 돌아왔나?

- 최근 컴백한 노장 스타들, 트로트 장르 선택
 - 그룹 쿨의 김성수, 세미 트로트인 디지털 싱글 'The F4 Story'로 컴백
 - 락커로 활동했던 성진우는 6집 트로트 앨범 '딱이야'로 컴백
- 특히, 기존의 트로트가 다시 주목받으면서 아이돌 그룹도 시장에 진입하고 있음
 - '07년에는 슈퍼주니어가 유닛인 슈퍼주니어-T를 결성, 트로트곡 '로꾸거'로 활동
 - 빅뱅 대성은 '날봐 귀순', '대박이야'를 디지털 싱글로 발매하여 인기를 모음
 - 소녀시대의 서현은 트로트 가수 주현미와 함께 디지털 싱글 '짜라자짜' 발표
 - 김종국, 지난 3월 콘서트에서 공개한 트로트곡 '따취'를 최근 디지털 싱글 발매
- 아이돌 그룹의 트로트 참여가 '이벤트성'이라면, 기존 가수들은 이익실현이 목표
 - 트로트의 인기 열풍은 장윤정의 '어머나' 이후 촉발된 트로트에 대한 신세대 생산자와 소비자의 의식변화에 기인
 - 세대를 가리지 않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어 대중성 확보가 용이하며, 비용대비 효과가 높음
 - 특히, 장르 특성 상 음반 판매보다 행사 위주의 수익을 창출함으로써, 다른 장르에 비해 가수들이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 가능
 - 록그룹 백두산의 멤버 유현상은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10년 전 갑작스레 트로트 가수로 전향하게 된 배경에 경제적인 문제를 우회적으로 언급함
 - 최근 가요계 불황이 심화되면서 가수들의 수익원이 '행사'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줌
- 현재의 트로트 열풍이 트로트 장르의 단순한 인지도 제고 외, 트로트 장르의 질적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향후 추이에 관심 가질 필요 있음

2-4. 미디어 소비 행태와 광고 영향력 조사 결과

- 방송통신위원회가 2000년 이후 매년 실시해온 TV시청행태조사를 분석하여 최근 국내 미

디어 소비 트렌드 도출

- 디지털 TV와 개인용 미디어(MP3P, PDA, DMB휴대폰 등) 보급 증가
(디지털 TV 가구보유율 '06 20.4%→'08 34.6%, DMB '06 10.5%→'08 34.9%)
 - TV 시청 행태가 “야외에서 개인 시청“으로 변화하는 등 미디어 소비의 디지털화, 개인화 가속
 - 주요 미디어 중 TV, 인터넷은 매일/거의 매일 소비하는 비율이 유지되는 반면 라디오, 신문은 감소 추세
 -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각 매체의 이용 시간은 줄어드나 매체이용의 총량은 증가
 - 미디어 수용자는 매우 보수적
 - 유료방송에 대한 추가 지불 의사와 뉴미디어에 대한 수요는 높지 않은 편,
 - 연령에 따라 다르나 DMB 등 뉴미디어에 대한 필요성도 사용도에 비해 현저히 낮음
- 매체별 광고 영향력은 지상파 TV가 1위(3.38점, 5점 만점), '라디오 방송'(3.03점)이 2위를 차지했고, 그 뒤를 이어 '인터넷', '케이블TV' 순 (트렌드모니터 조사)
- 전국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남녀 1,041명을 대상으로 설문 실시
 - 라디오 방송국 선호도는 'MBC'(47.8%), 'KBS'(21.6%) 순으로, 특히 'MBC FM4U'(19.0%) 채널을 즐겨 듣는 것으로 조사
 - 라디오 선호의 이유로는 '다른 일을 하면서 들을 수 있다'는 점이 1위에 꼽힘
 - 주로 아침 (6~9시), 운전을 하면서 많이 듣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주로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은 '음악'(80.4%), '시사정보'(24.3%), '실시간 교통상황'(16.2%) 순
- TV의 미디어 소비와 영향력은 절대적, 라디오의 소비는 감소 추세이나 광고 영향력은 여전히 TV에 이어 2위 유지
- 특히 라디오 프로그램 선호도에서 음악 프로그램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음

2-5. 미국,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 리스트에서 한국 제외

- 미 무역대표부(USTR)는 `2009년 스페셜 301조* 보고서'에서 한국을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 리스트에서 제외 (4/30일)
- 1988년 종합무역법 발효 이후 20년 만에 최초 ('우선감시대상국' 9회, '감시대상국' 11회)
 - 국제지재권연맹(IIPA)이 올해 2월 USTR에 한국을 지재권 위반 감시대상국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하였으나 USTR이 수용하지 않음
- 미 무역대표부(USTR)는 매년 4월말까지 각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분류하여 지정
- '우선협상대상국', '우선감시대상국', '감시대상국' 등으로 분류
 - 우선협상대상국에 대해서는 무역보복조치 가능

- 올해 리스트 특징: 한국, 대만 제외, 중국, 러시아가 지난해에 이어 포함, 캐나다 우선감 시대상국 선정

※ 스페셜 301조 : 미국이 1988년 도입한 종합무역법(Omnibus Trade Act) 제182조를 지칭하는 것으로 지재권분야에만 적용되는 통상법 조항

2-6.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*, 저작권 침해 건으로 NHN 고소

○ 음실련,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을 저작권법 위반(복제, 전송권 침해 방조) 혐의로 고소

- 기존 네이버의 서비스가적절한 저작권보호 정책이 부재하고 저작권 위반 사례에 대해 특정 링크만 삭제 또는 블라인드함으로써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를 조장한다고 주장

※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: 가수와 연주자, 국악인, 성악가 등 우리나라 모든 음악실연자의 저작권접권을 관리하고 있는 단체

3 기술 동향

3-1. 애플, 아이팟용 '멀티미디어 콘텐츠 자판기' 특허 출원

○ 아이튠즈와 앱스토어로 콘텐츠 다운로드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애플이 '멀티미디어 콘텐츠 자판기'에 대한 특허 출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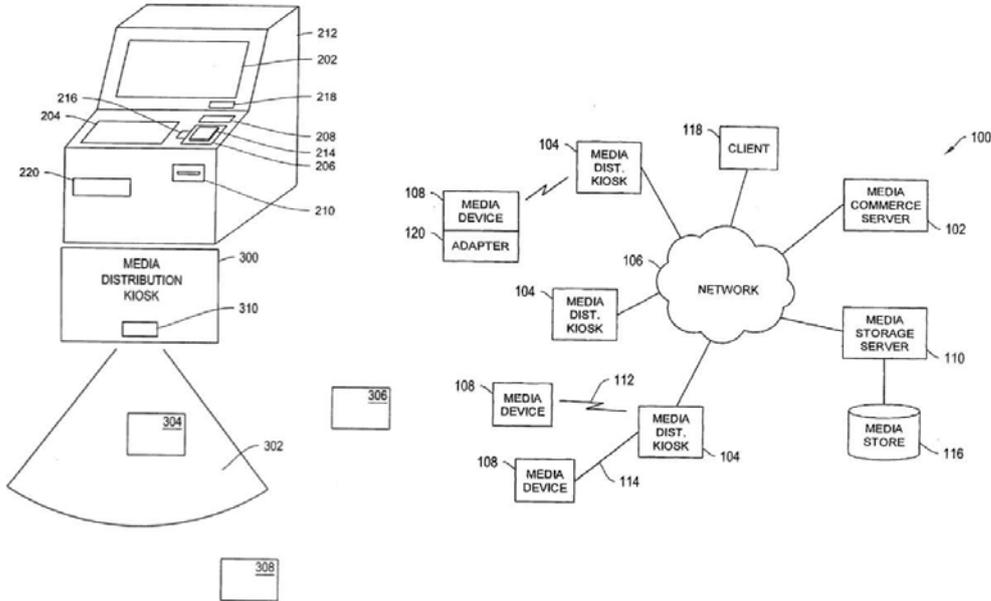
- 최근 애플은 미국 특허청에 '미디어 배포 키오스크(Media distribution kiosk)'시스템과 여기서 활용될 '가상 접속 인터페이스(Virtual connector for interfacing)'에 관한 내용의 특허 출원
- 키오스크 시스템은 공공장소에 설치돼 PC가 없어도 아이튠즈나 앱스토어에서 음악이나 동영상 및 각종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가능

○ 이러한 콘텐츠 판매 서비스는 콘텐츠를 사용하는 단말기 업체를 중심으로 주목

- 소니 에릭슨, '09.01월 아시아의 자사 매장에서 키오스크 형태의 콘텐츠 판매 실시 시작 (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와 계약, 약 23,000여곡의 DRM-프리 음악과 30개의 신작영화, 4개의 TV 드라마 시리즈, 25개의 게임 제공)
- 노키아 (컴스 위드 뮤직), 소니에릭슨 (플레이나우 플러스, 스웨덴) 등 온라인 판매 서비스 실시
- 단말기만으로는 사업을 확장할 수 없는 제조업체의 선택

○ 애플은 이미 온라인에서 확보한 막대한 콘텐츠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브랜드를 활용하여 오프

라인에 진출함으로써, 콘텐츠 다운로드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



[애플의 특허출원 문서에 첨부된 미디어 키오스크 시스템 개념도]

4 정책 동향

4-1. 한국 콘텐츠 진흥원(원장 이재웅) 출범

-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,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관계자 400여명 참석한 가운데 개원 행사 (5/7일,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)
 - 상임이사에 최영호, 정동천 임명, 홍보대사 김윤진 위촉
- 기존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,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, 한국게임산업진흥원, 문화콘텐츠센터,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단 등 5개 콘텐츠 관련 기관 통합, 설립 (6본부 1실 1센터 2단 21팀)
 - 장르별로 분산되어 있던 콘텐츠 진흥 기능의 일원화를 통해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활발한 글로벌 콘텐츠 시장 진출을 위함

4-2. 문화체육관광부, 저작권 보호 T/F 설치안 발표

- 콘텐츠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제시 (5/8)

- 문화부, 검찰 및 경찰 등 '저작권 보호 T/F' 구성하여 효율적 단속체계 마련('09.10)
-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유통근절을 위해 상습유통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헤비업로더에 대한 단속 강화 추진 ('09.하반기부터, 분기별 수사 정례화)

5 해외 동향

5-1. 프랑스, '삼진아웃제' 불법다운로드 인터넷 접속 금지법 의회 통과

- 5월 13일,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인터넷 저작권 보호 법안인 "Creation & Internet" 법 프랑스 상하원 통과
 - 음악·영화·TV쇼 등을 3번 이상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사용자에게 대해 1년간 인터넷 접속을 금지
 - 1차 2차례에 걸친 이메일 경고, 2차 우편에 의한 서면 경고, 3차 1년간 인터넷 접속 차단하고 퇴출하는 3단계 제재 조치로 '삼진아웃제'로 불림
 - 4월 9일 부결된 이후 재차 논의하여 찬성 189, 반대 14표로 통과
 - 프랑스 정부는 2006년 한 해 동안 불법으로 유통된 음악과 영화, 출판물, 컴퓨터 게임 등이 10억 건으로 본 법안이 본격 시행되면 온라인 저작권 침해 건수가 80% 가량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
- 새로운 정부조직인 '아도피' (Hadopi, la Haute Autorité pour la diffusion des oeuvres et la protection des droits sur Internet : 인터넷 상에서의 저작배포와 권리 보호를 위한 최고권위기관)에서 불법 다운로드를 추적하고 처벌하는 업무를 전담함
- 국제음반산업연맹(IFPI)의 대표인 John Kennedy 는 “프랑스의 본 사례는 전 세계에 보통의 합법적인 인터넷 이용자를 존중함과 동시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분별력 있고 균형 잡힌 조치로서 큰 영향을 미칠 것” 이라고 말함

5-2. 영국, 정부가 지원하는 젊은이를 위한 대중음악 리허설 공간 첫 개관

- 젊은이를 위한 음악 리허설 공간, 리버풀 Knotty Ash Youth Centre 개관
 - 5월 11일, 비틀즈가 1962년에 연주했던 장소이기도 한 첫 번째 음악리허설 공간, 리버풀 Knotty Ash Youth Centre 개관
 - 음악 리허설 공간은 젊은이를 위한 여가시설임과 동시에 전문적인 음악장비를 갖추어 밴드들이 음악 연습을 하고 사운드 엔지니어링과 이벤트 프로모션 등의 유용한 제작 기술을 연마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
 - 향후 영국 음악을 이끌어갈 밴드나 음악 산업에서의 커리어를 양성시키는 역할도 담당하며 새로운 시대의 뮤지션에게는 음악적 꿈을 추구하는 기회 제공
 - 영국 문화부(DCMS: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)와 산하기관인 UK

MUSIC*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음악적 혜택이 없는 지역 위주로 건립되며 지역 내의 결합을 도모하고 창의성을 고취시키는 계획의 일환임

- 영국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10개의 리허설 공간(Music Rehearsal Space)을 만드는데 £500,000 지원하기로 했으며 브리스톨, 헤이스팅스, 맨체스터, 워링턴, 노퍽, 성오스텔, 콘웰 등으로 확대되며 다른 청소년 수련시설 조차도 부족한 가난한 지역에 설치될 예정

○ 도시집중의 음악편중을 막고 지역음악의 부활을 유도하고 직접적인 제작기술과 장비체험을 통해 미래의 뮤지션을 발굴함과 동시에 지역 개발까지 도모

○ 미래의 뮤지션 양성까지 고려한 체험형 '음악 리허설 공간'이라는 대중음악 공간 확충을 통해 사회-문화-경제를 긴밀하게 연결하는 선구적인 정책을 시도하는 영국의 사례는 대중음악 공연장도 부족한 한국적 상황에 시사 하는 바가 큼.

※UK MUSIC : 영국 음악 산업 진흥을 위해 설립된 UK MUSIC은 2008년 9월 설립된 산하 조직으로 아티스트, 뮤지션, 작사/작곡가 등의 창작자에서부터 레이블, 퍼블리셔, 음반사, 매니저까지 폭넓은 산업관계자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기관

별첨 관련 기사 및 자료**1-1. 2009년 5월 1주차 음원 판매 현황**

엠넷 www.mnet.com

멜론 www.melon.com

도시락 www.dosrak.com

1-2 YG엔터테인먼트의 여성그룹 2NE1, 화려한 데뷔

뉴스엔, 09/5/8, '2NE1 '파이어' 뮤비 조회수 300만 돌파+음원차트 1위 석권'

매일경제, 09/5/8, '[기획] 베일 벗은 2NE1, 여자 아이돌 새 역사 쓸까?'

아시아경제, 09/5/12, "'여자빅뱅' '2NE1 전략' 어디서 많이 본듯하네!'

국민일보, 09/4/14, '빅뱅에 손가락 얹은 '2NE1' 성공할 수 있을까?'

2-1. 같은 날, 다른 장소, 두 개의 록 페스티벌 성공할까?

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www.pentaportrock.com

옐로우나인 www.yellownine.co.kr

지산밸리 록 페스티벌 www.valleyrockfestival.com

헤럴드경제, 09/2/27, '동강난 펜타포트... Rock의 해방구 진흥탕속으로'

연합뉴스, 09/5/13, '펜타포트vs지산, 록팬은 어느 장단에 춤?'

뉴스엔, 08/7/29, '세계적 록그룹 9개팀 출연예정 '썸머브리즈' 취소, 예매율 저조 '

한국일보, 08/7/29, '막도 못 올린 '썸머브리즈 록 페스티벌'

이데일리, 09/5/14, '인천시, '지산 밸리' 측에 '펜타포트' 상표권 반환 요구'

매일경제, 09/5/14, '지산록페가 펜타포트의 상표권을 등록...왜?'

2-2. 보아, 미국 최대 에이전시 CAA社와 계약 체결

스포츠서울, 09/5/7, '국내 연예인, 해외 유력매체로부터 잇따른 주목'

무비위크, 09/05/08, '보아, 미국 접수 준비 완료!'

연합뉴스, 09/5/6, '보아, 美 에이전시 CAA와 계약'

경제투데이, 09/5/6, '보아, '글로벌체제 가동' CAA 계약'

KOTRA, 07/3월, '미국 음반 시장, 이렇게 진출하자'

뉴시스, 08/9/14, '보아 '미국진출'이 구차스러운 이유'

조이뉴스, 09/5/6, '보아, CAA와 손잡고 미국 투어 추진'
 스포츠월드, 09/5/6, '보아, 머라이어 캐리·브래드 피트 등과 한술밥'
 세계일보, 09/3/31, '[주목 이사람] 세계적 연예기획사 WMA 수석 부사장 스텐워드 텐저'
 네이버 뮤직 스페셜, 09/5/15, '미대륙에 상륙한 보아 vs 세븐'

2-3. 그들은 왜 트로트로 돌아왔나?

스포츠월드, 09/5/5, '록커 출신 사민, 전통 트로트 도전'
 뉴스엔, 09/5/6, 박재훈 "데뷔 15년 중고신인, 인생의 마지막 승부 걸었다"
 포커스, 09/5/7, '래퍼 15년만에 신나는 반란 40대 유혹 트로트'
 스포츠월드, 09/5/7, '김성수 "이 나이에 힙합보다는... 오래가는 트로트가 딱!"'
 스포츠조선, 09/5/8, "대찬인생" 박현빈, "5연타석 홈런 쳐야죠"
 중앙일보, 09/5/7, '백두산! 그들이 돌아왔다'
 '스포츠서울, 08/8/8, '아이돌 그룹, 트로트에 빠진 까닭' 남녀노소 다함께 짹짹"
 나우뉴스, 09/5/7, '왜 아이돌은 트로트로 전향하는가?'

2-4. 미디어 소비 행태와 광고 영향력 조사 결과

TV시청행태조사를 통해 본 미디어소비 트렌드, 정용찬, 정보통신정책연구원
 라디오 청취 행태와 매체 영향력 조사, 트렌트모니터(www.trendmonitor.co.kr)

2-5. 미국,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 리스트에서 한국 제외

문화체육관광부 www.mcst.go.kr

2-6.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, 저작권 침해 건으로 NHN 고소

아시아투데이, 09/5/6, '가수·연주자, 저작권 위반혐의로 NHN 고소'
 파이낸셜뉴스, 09/5/6, '음실련 "저작권법 위반" NHN 고소'

3-1. 애플, 아이팟용 '멀티미디어 콘텐츠 자판기' 특허 출원

베타뉴스, 09/8/8, '애플, 아이팟용 '멀티미디어 콘텐츠 자판기' 내놓나'
 버즈, 09/1/20, '모바일 콘텐츠에 눈을 돌려라'

4-1. 한국 콘텐츠 진흥원 출범

한국콘텐츠진흥원 www.kocca.kr
 IT데일리, 09/5/7, '한국콘텐츠진흥원 공식 출범'

4-2. 문화체육관광부, 저작권 보호 T/F 설치안 발표

문화체육관광부 www.mcst.go.kr

데이터넷, 09/5/8, '문체부, 저작권 보호와 콘텐츠 산업 육성 '본격화''

5-1. 프랑스, '삼진아웃제' 불법다운로드 인터넷 접속 금지법 의회 통과

아이뉴스24, 09/5/14, 프랑스, 불법 다운로드 사용자 인터넷 접속 금지 '철폐'

동아일보, 09/4/9, 프랑스 의회, 불법 다운로드 퇴출 법 추진

IFPI, 09/5/13, IFPI statement on the adoption of French "Creation and Internet Law"

5-2. 영국, 정부가 지원하는 젊은이를 위한 대중음악 리허설 홀 첫 개관

BBC NEWS, 09/5/11, Government funds music rehearsals

NME, 09/5/11, New music space opens in Liverpool May

UK MUSIC, www.ukmusic.org

Knotty Ash Youth Centre, www.kayc.co.uk

본 자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

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팀

과장 김도윤(TEL 02-3153-1286 , doyun.kim@koCCA.kr)